경제&산입



하나은행, 새 모델로 배우 김유정 발탁

가진 MZ세대 특유의 상큼발랄과 맑고 깨끗함, 건강하고 친근한 이미지가 하 나은행이 추구하는 가치와 잘 부합한다"고 했다. 하나금융의 새 비전인 '하 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'에 맞춰 기존 모델인 축구선수 손흥민과 함께 세대 를 연결하는 하나금융의 새롭고 혁신적 가치를 전파할 예정이다.

*스로*초동아 2022년 7월 6일 수요일 13

LG전자 전장, 주력사업으로 본궤도 오를까

상반기 신규 수주 8조…9년 만에 흑자 전환 예상

LG전자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낙점 하고 사업 확장에 주력해 온 자동차 전 장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. 상반기 전장사업에서 신규 수주 8조 원을 달성 했다. 지난 2분기에는 전장사업에서 흑 자를 낸 것으로도 추정된다. 인포테인먼 트(VS사업본부)와 조명(ZKW), 전기차 파워트레인(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) 등 3개축으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L G전자는 글로벌 완성차와의 협력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. LG마그나의 경우 멕 시코 공장을 착공하면서 글로벌 생산거 점 확대에 나섰다. LG전자는 또 최근 전 기차 충전기로도 영역을 넓히며 포트폴 리오를 확대했다.

2분기 전장사업서 400억 이익 예상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잇달아 수주 벤츠 등 완성차 업체들과 협력 확대 멕시코에 전기차 부품 공장 착공 "앞선 기술력으로 고객에 가치 제공"

● "연말 총 수주잔고 65조 원 넘어설 것"

LG전자는 전장사업에서 상반기 8조 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5일 밝혔다. VS사업본부는 최근 유럽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를 다수 보유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인포테인먼트 시 스템, 일본 메이저 완성차 업체의 5G 고 성능 텔레매틱스 등을 잇따라 수주했다. 8조 원의 신규 수주는 지난해 말 기준 수 주잔고인 60조 원의 13%를 넘어서는 성

LG전자는 3대 핵심사업이 고르게 성 장해 연말에는 총 수주잔고가 6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. 전장사업의 활 등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들을 고객으로 발한 수주는 매출 성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. VS사업본부의 연결기준 지난해 매출은 2020년보다 약 24% 성장했다.



LG전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된 디지털 콕핏,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 전기차 파워트레인, ZKW 차세대 헤드램프의 콘셉트 이미지(위부터 시계

인포테인먼트 시스템, 프랑스 르노그룹 의 전기차 신모델 메간 E-Tech에 인포 테인먼트 시스템, 미국 GM의 프리미엄 브랜드 캐딜락에 플라스틱 올레드 기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글로벌 주요 완 성차 업체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.

ZKW는 BMW, 벤츠, 아우디, 포르쉐 확보했다. LG마그나는 인천, 중국 난징 에 이어 최근 멕시코에서 세 번째 전기 차 부품 생산공장 착공에 들어갔다. 코 환도 기대된다.

LG전자는 독일 메르세데스-벤츠 AG 이우일라주 라모스 아리즈페에 2023년 의 프리미엄 전기차 2022년형 EQS 모 까지 연면적 2만5000m² 규모의 공장을 델에 플라스틱 올레드(P-OLED) 기반 구축해 GM의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할 구동모터, 인버터 등 핵심부품을 생산할 계획이다. 은석현 LG전자 VS사업본부 장(전무)은 "전장사업 핵심영역 전반에 걸쳐 LG전자의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 로 글로벌 완성차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 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"고 말

●2분기 흑자전환 기대

LG전자는 전장사업 부문에서 흑자전

LG전자는 7일 2분기 잠정 실적을 발 표할 예정이다. 증권가에선 보복 소비 둔화와 함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가 전 수요 감소로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. 다만 전장 사업에선 수주량이 늘면서 사업 시작 9년 만에 사 실상 첫 흑자 달성이 예상된다. 관련 업 계는 LG전자가 2분기 전장 사업에서 약 400억 원 정도의 이익을 냈을 것으로 보 고 있다. LG전자는 2013년부터 전장 사 업을 시작했다. 이후 2015년 4분기에 50억 원의 깜짝 이익을 낸 것을 제외하 면 내내 적자를 이어왔다.

김명근 기자 dionys@donga.com

한국계 수학자 허준이 교수 '수학계 노벨상' 필즈상 수상

4년마다 40세 미만에 주는 최고의 상 '리드 추측' 등 난제 증명해 주목 받아



허준이 교수

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겸 한국고등과학원 석 학교수가 5일(현지시간) 수 학자 최고의 영예인 필즈상 을 수상했다. 국제수학연맹 (IMU))은 이날 핀란드 헬싱 키 알토대학교에서 열린 시 상식에서 허 교수를 수상자 로 발표했다.

필즈상은 국제수학연맹이

4년마다 세계수학자대회(ICM)를 열어 새로운 수학 분야 를 개척한 만 40세 미만 젊은 학자 최대 4명에게 수여하 는 수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. '노벨 수학상'이 없어 수학계의 노벨상으로도 불린다. 한편에서는 노벨상 은 매년 시상하며 공동 수상이 많은 반면, 필즈상은 4년 마다 최대 4명까지만 시상하고 공동 수상이 불가한데다 여기에 나이 제한까지 있어 노벨상보다 받기 더 어려운 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.

허 교수는 세계수학자대회 126년의 역사에서 한국계 수학자 역대 최초로 수상했다. 허 교수는 미국에서 태어 나 한국으로 건너와 초등학교부터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국내에서 교육을 받았다. 서울대 수리과학부 및 물리천 문학부 복수전공을 하고, 같은 대학에서 석사를 마쳤다. 미국 미시간대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, 현재 미국 프리스턴대 교수와 한국 고등과학원 석학교수로 활동하 고 있다.

허 교수는 대수기하학을 이용해 조합론 분야에서 '리 드 추측' 등 다수의 난제를 해결하고 대수기하학의 새 지 평을 연 공로를 인정받아 필즈상을 수상했다. 그의 연구 업적들은 정보통신, 반도체 설계, 교통, 물류, 기계학습, 통계물리 등 여러 응용 분야의 발달에 기여하고 있다.

학계에서는 허 교수가 필즈상을 수상한 것은 2월 국 제수학연맹이 한국 수학의 국가등급을 최고등급인 5그 룹으로 상향한 것에 이은 한국 수학의 쾌거로 평가했다. 국제수학연맹 5그룹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독일, 러시 아, 미국, 브라질, 영국, 이스라엘, 이탈리아, 일본, 중 국, 캐나다, 프랑스 등 12개국이다.

허 교수는 8일 오전 9시45분 루프트한자 718편을 통 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.

김재범 기자 oldfield@donga.com

건강 올레길 |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

여름철 다이어트. 군살 제거 어렵다면… "주사요법·레이저분해 등 자극 가해 개선"

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이어트 삼매경에 빠진 이들 이 많다. 그러나 운동, 식이요법을 실천해도 살이 쉽게 빠지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. 일부 신체 부위의 살이 제대로 빠지지 않는다면 지방을 저장하는 데 기여하는 리포단백리파제 효소의 활성화 차이를 염 두에 둘 수 있다. 하체 비만이라면 여성호르몬인 에스트 로겐 분비 변화를 의심할 수 있다.

지방세포에는 지방 출입을 담당하는 알파수용체, 베 타수용체가 있다. 알파수용체는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반면 베타수용체는 지방 분해를 도와주는 것이 특징이 다. 만약 알파, 베타 수용체의 분포현황이 부위 별로 다 르면 살이 찌는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. 허벅지 는 하복부 대비 알파수용체가 많아 운동만으로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부위로 꼽힌다. 이런 부위 지방은 주사요 법, 레이저 분해, 초음파 관리 등 물리적인 자극을 가해 개선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.

BS주사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없는 주사요법으로 통증 및 붓기를 최소화하며 군살 제거에 효과적이다. 특정 부 위 사이즈 감소, 셀룰라이트 개선, 지방 파괴 효과, 림프 순환, 피부 탄력 증진 등을 견인하는 것이 포인트다. 지방



제거로 피부 탄력 저하가 우려된다면 고 강도 집속 초음파 관리를 고려할 수 있다. 개인마다 피부 컨디션 및 지방량, 체 질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 정밀진단이 이뤄져야 한다.

망포 피부과 어바웃라인의원 **송이레** 원장 편집 | 신하늬 기자 mythuki@donga.com

6월 소비자물가 6% 급등…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'최고'

공급망 차질로 공업제품 물가 상승 특히 석유류 가격 39.6%나 급등 연중 물가상승률 7%대 상승 우려

6월 소비지물가가 지난해보다 6% 급등 했다.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1월(6.8%)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이 다. 공급망 차질과 전쟁 장기화로 공업제 품 가격이 크게 올랐고, 서비스 가격도 오 름세를 보였다. 연중 물가상승률이 7%대 까지 오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.

5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.22(2020=100)로 지난해 같은 달보 다 6.0% 올랐다.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3%대를 보였고, 3월(4.1%)과 4월(4.8%) 4%대로 높아졌으며, 5월에는 5.4%까지 오르며 계속 가팔라졌다.



서울 망원시장에서 채소를 고르고 있는 시민들. 6월 소비자 물가가 IMF 외환위기 이후 23년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인 6.0%를 기록했다.

물가를 끌어올린 것은 공업제품과 개 5.0%를 차지한 것이다. 인서비스였다. 공업제품 물가 기여도는 3.24%p, 개인서비스는 1.78%p로 나타 했다. 2008년 9월(9.3%) 이후 최대 상승

품목별로 보면 공업제품은 9.3% 상승 났다. 두 품목이 물가 상승률 6.0% 중 폭이다. 특히 석유류 가격은 39.6%나 급 획이다"고 밝혔다.

등했다. 가공식품 물가도 7.9%나 뛰었 다. 농축수산물 물가는 4.8% 올랐다. 전 기·수도·가스요금은 9.6% 상승했다.

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도 5.8%로 높 게 나타났다. 특히 외식 물가가 8.0%나 뛰었다. 공공서비스는 0.7%, 집세는 1.9% 올랐다.

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7.4% 상승했다. 1998년 11월(10.4%)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

기획재정부는 "우크라이나 사태 장기 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국제 에너지, 곡물가 상승 영향으로 당분간 어 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될 수 있다"며 "그 동안 발표한 민생·물가안정 과제들을 차 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민생부담을 최소 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지속 강구할 계 김명근 기자